

이무성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120-728

이메일: lms1221@mju.ac.kr

사무실 전화: 02-300-0697

초록

현대 인간 삶 속에서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의 담론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황 속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세계화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자칫하면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 현상을 개략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의 제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런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세계화에 직면한 제도화의 과정에서 커리큘럼 설립, 외국인 교수 및 학생의 증원 등 공식적인 제도들의 정비와 함께 비공식적인 제도들의 정비를 통한 통제 신념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제 신념의 형성은 각 구성원의 상호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구축된 기본신뢰를 통해 가능하다는 구성주의적 논의도 첨부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의를 통해 향후 기독교 대학들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할지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세계화, 기독교 대학, 제도주의, 사회 구성주의, 통제
신념

I. 서론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에 부합한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논제는 많은 기독교 대학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세속적인 대학들의 운영과 달리 세계

화란 담론 속에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느 때 보다 분명해 보인다. 비록 그 당위성에 있어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는 분명해 보일지는 모르나, 여전히 기독교 대학이 세계화란 거대 담론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는 쉽고 명료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 작금의 세계화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은 (김준현, 2004)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 대학의 학교 운영에 완전히 배재되어있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바는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이고, 자기희생을 통한 이웃 사랑이 그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각자에게 부여된 소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것이 그 통제 신념 (control belief) 이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독교 대학과 비기독교 대학 사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독교 대학이 세계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 첫 번째 제언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정신이 학교 교육에서 부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론적 배경과 관련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독교적 사상이 세계화를 표방하는 교육 제도 속에 통제신념(control belief)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거둬나기 위해선 현재의 교육여건 및 운영에 있어 제고가 필요하다. 세계화에 따른 공식적인 (formal) 제도 - 커리큘럼, 학생 및 교수의 외국인 수와 비율, 타 지역 대학과의 연계 등 - 들의 도입 및 시행과 더불어, 진정한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하

53) 통제신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 4절 참조

기 위한 통제신념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제도 정착과 더불어, 기독교 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비공식적 (informal)인 제도들을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런 비공식적인 제도들이 차별성에 기초를 두어 정착될 때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부활되며, 이는 중국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부합한 세계화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인 제도들의 정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 구성주의의 설명(Rosamond, 2000)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둘 경우, 행위자 자신들이 참여하는 상호관계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이익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행동양식이 구성 재구성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본신뢰틀 (basic trust unit)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정신의 발전되고 이는 더 나아가 세계화란 담론 속에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란 명제를 기존의 제도주의적 시각을 통해 이분법적 접근을 우선 시도하고 이런 논의를 사회 구성주의적 시각으로 보완함으로써 향후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작업에 하나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 세속적 여파⁵⁴⁾

54) 본 절은 이무성 (2006), “세계화, 기독교 대학, 그 함의”, 『리서치 아카데미』 vol. 9, pp. 49-64를 기초로 하여 그 논의를 보완 발전시켰다.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어떤 교육기관도 세계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대다수의 교육기관은 세계화 물결에 편승하거나 또는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자 한다. 이런 정황 속에서, 기독교대학도 여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세속적 세계화의 시류에 편승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그 근본마저 희석시킬 수 있는 세계화가 무엇이고 그 현상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세계화(globalization)의 발생과 그 기원을 살펴볼 경우 세계화란 용어는 서구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에서는 ‘세계의’ (global)란 용어는 19세기 말엽부터 전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세계화하다’ (globalize), ‘세계론’ (globalism) 등과 같은 용어는 영국의 광고 문구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Bennet and Oliver, 2002: 275). 물론 19세기에 보였던 세계화 현상이 오늘날의 그것과 견주어 보았을 때 크기나 규모면에서 비교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그것과 비슷한 강도나 규모로 이해되는 것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세계화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생성된 것이다.

비록 세계화가 몇 세기에 걸쳐 현대인의 삶에 깊숙이 침투한 것처럼 보이나, 세계화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곳은 1961년 Webster 사전이다. 세계화가 사전에 등재된 이후 일상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1975년 경이며, 세계화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부터 세계화란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었고 그 현상에 대한 담론은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 정치, 비즈니스, 광고 및 연예 오락계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인간 삶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화 현상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세계화는 지리적 제약성을 뛰어넘어 세계를 단일

공동체로 만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대인의 삶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지역화 (deterritorization)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Albrow, 1990; Scholt, 2001).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세계화는 단순한 지리적 통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세계화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로 특징 지워 지을 수 있는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활동의 범주가 자국 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을 초월하여 발생하게 한다. 과거 국가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현상들이 국가 간 거래의 확대로 인해 국제적인 준거의 틀 속에서 재해석되는 현상을 지칭하였고 이런 국제화의 특질은 대학교육에도 나타나고 있다. Hayes와 Wynyard (2002)는 교육시장의 국제화를 맥도널드화 (McDonaldization)라 정의 내렸다. 즉 한 국가의 교육 제도나 프로그램이 다른 곳에서도 설립 및 제공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대학교육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대학은 국제화를 통해 질적인 관리와 개선을 추구하고자 한다. 기독교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대학도 국제화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등 교육기관인 기독교 대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교육 및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물론 대학교육의 세계화가 미국을 위시한 서구학문체계의 수용인가에 대한 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들 체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 영어를 매개체로 한 강의 비율을 높이거나, 영어강좌 개설을 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학 교육 국제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시책은 대학 주도하에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부

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대학에서는 졸업 조건으로 최소 몇 개의 영어 강좌를 수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의 예와는 조금 다르지만, 최근에는 실용주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경영학 및 공학 인증 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많은 대학이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 학기 중이나 방학을 이용한 해외 교환 학생제도이다. 또한 인적 구성원에 있어서도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교수 선발의 주 목적이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국제화에 따른 여파로 각 전공분야에서 외국 석학의 초빙이나, (특히 제 3 세계의) 외국 학생의 유치가 적극적이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이 출신지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에서부터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대학들은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나 학교 운영만을 통해서 경쟁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에 따른 결과로서 작금의 국제화는 더욱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논의될 세계화의 특질과 이에 따른 교육현장의 변화는 자유화 (liberalization)란 개념과 연관관계가 깊다. 세계화의 특질을 설명하는 자유화의 개념은 인간 활동이 탈지역화의 결과로서 더 이상 지역 및 국가의 보호막이 작동 될 수 없다는데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타 지역 및 국가의 사상, 문화, 경제 모델 등을 수용하도록 사회 및 국가 체제가 변화되는 현상으로서 기존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주체들은 과거 자신들이 기준으로 살아왔던 삶의 행태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정치, 문화,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존의 틀이 허물어지고 타 지역의 것이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자유화로 대변되는 세계화이다. 이런 자유화 현상은 대학교육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럼 자유화는 기독교 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의 운영에 어떤 여파를 미쳤는가? 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대학교육 자체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펼치는 구조 개선의 노력이다.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높아져 가는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 개방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몇몇 대학들은 타 대학들과 연대를 하거나 55)
- 해외 대학과도 연대하거나, 또는
- 인터넷의 발달로 가능해진 이러닝 (e-learning)은 기존의 대학교육의 기본 패러다임을 변화56) 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교육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한 지역 또는 국가의 경계선 테두리를 넘어서 탈지역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 자유화 (liberalization) 과정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고 있다.

셋째, 세계화를 서구화 (westernization) 또는 미국화 (americanization)라고 간주된다. 세계화를 서구화 또는 미국화라고 보는 이들은 세계화 현상 그 자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진 않는다. 사실 세계화란 담론의 근원지가 현 세계체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사회에서 찾

55) 이로 인해 대학 교육장의 자유화는 더욱더 가속화 되는 일종의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가 발생된다고도 볼 수 있다.

56) 과거 캠퍼스 중심의 대학교육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신 개념의 대학 교육이 가능해 지고 있다 (Robins and Webster, 2003).

을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체제가 헤게모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재화, 서비스 그리고 사상 및 삶의 방식이 타 지역에서도 수용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비서구 지역이 서구화나 미국화는 수용의 대상이며, 서구 지역도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재개편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보게 된다.⁵⁷⁾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대학 교육을 이해함에 있어 미국화 또는 서구화를 받아들이고 있다.⁵⁸⁾ 교육시장의 전체적인 발전방안이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영미권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팽배한 이유는 이들의 교육제도가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보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후진 국가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Altbach and Wiswanathan, 1989). 한국의 대학에서의 이와 같은 서구 대학 제도 수용에 있어서도 기타 후진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발전을 하였지만, 사실 한국 대학의 대외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최근 실시한 대학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 대학들은 세계 100권에 들지 못하고, 설령 든다 하더라도 100권 대열에 진입한 대학은 극히 소수이다 (박신흥, 2006). 아직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한 한국의 기독교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은 서구화, 미국화의 논리에 순응하고 이들 국가에서 행해지는 교육 및 학교 운영의 틀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특질은 세계화가 보편화

57) Said 는 이와 같은 서구화 및 미국화는 단지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과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았다. 즉 서구화 및 미국화는 강한 공간이 약한 공간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논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Said (1979) 참조.

58) 미국을 위시한 서구 대학의 학위 제도, 학점 및 수업 제도 및 기타 관련 학제는 중세 유럽 대학의 진화 속에서 발생한 모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Altbach, 2004: 2).

(universalization)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으로 한 개인 및 집단의 경험이나 사상 그리고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지역⁵⁹⁾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이용되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인 동인(動因)이 보편화의 시류를 주도함으로써, 상품 및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 보편적인 시류가 생겨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삶 전반이 보편화된 판단의 잣대를 기준으로 재해석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심지어 비주류의 삶의 행태나 가치들은 세계화의 걸림돌로 천시되거나 개선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진다. 이런 현상을 보편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대학의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까지 살펴본 특질들이 모든 대학 운영이나 설립 정신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의 세계화는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는 기타 대학과의 세계화와는 분명 달라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된 세계화의 특질들은 기독교 대학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 사실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는 기독 사상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이웃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전도와 같은 기독교 정신이 기초가 된 교육과 연구와 그리고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절에서도 다루겠지만, 단순히 기존의 세계화의 특질들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서 벗어나 기독교적 세계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론 현재의 세계화의 대세를 무시할 순 없지만 기독교 대학의 정

59) 여기에서 지역은 국가일 수도, 문화 지역 (a cultural area)일 수도, 생태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의 각 부분적 구획일 수도 있다. 이처럼 지역의 정의는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은 협의의 지역과 광의의 지역 모두를 포함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지역학연구회(1995)를 참조.

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세계화의 모습이 상기 언급된 현상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III. 통제신념의 부활의 당위성: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고찰

세계화에 따른 국제화, 자유화, 서구화 및 보편화는 상호 보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를 특징 짓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한국 대학의 세계화의 과정을 촉진 시킨 것이 상호보완적이며, 세계화란 환경이 대학이란 행위자들에게 독립적 여파를 끼침으로서 단순히 행위자의 의지나 결정이 틀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틀의 독립적인 변화 생성이 세계화 과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유기적이다. 따라서 국내 기독교 대학들도 여타 국내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물결에 편승하고자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독교 대학들의 정체성에 부합한 노력이 고착화 되어 가는 제도화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은 세계화의 추이와 그로 인한 교육 내용 및 여건의 제도화가 보여주는 현상을 적극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기독교대학으로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는 아직 의문이 남는다. 이를 위해 행위자의 정체성, 이익 및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화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자. 이 논의를 통해 현재 거세게 일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 기독교 정신이 통제 신념으로 어떻게 부활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자.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세계화에 따라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화 과정이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 2절에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제도화의 중심인 제도(institutions)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제도화 과정의 중심이 되는 제도들의 구성에 있어 차이점을 알아봄으로서, 기독교 대학과 비기독교 대학과의 세계화 대처 방안이 구분되어지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제도주의자들은 어떤 제도적 선택이 이루어 졌는가에 따라 가능한 미래의 선택을 예견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제도가 투명성과 신뢰가 있는 정보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장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선택이나 정책결과에 있어 중재 변수의 (intervening variable)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March and Olsen, 1984). 개별 행위자의 이익이나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 및 의사결정이 주어진 시기의 이용 가능한 제도들의 능력에 의해 제한되고 그 제도의 능력은 그 자체로 이전 시기 선택의 산물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제도는 환경이 변할지라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려 하는 관성을 가지고 모든 분석에 있어 제도가 가장 중요한 분석 요인으로 간주된다 (Krasner, 1988).

그럼 현재 기독교 대학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로 의존성을 가지는 제도화의 결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고착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사실 세계화란 담론이 제도로 변환되어 행위 대상자인 기독교 대학의 선택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친다면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제 2 절

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란 자유화, 보편화, 서구화, 국제화 등의 특질로 나타나 실제 대학교육 및 운영체제 선택에 영향을 끼침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논의가 여기서 끝난다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회복이란 질문에 대답을 찾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사실 제도화의 중심인 제도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자.

제도란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식적 제도이며, 둘째는 비공식적 제도이다 (Rosamond, 1998, 113-122). 공식적 제도는 여러 가지로 다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제도에는 공식적인 법 조항, 일련의 의사 결정안 등 자기중심적인 행위자들에게 어떤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역사주의 제도주의자들은 공식적인 규칙, 지켜져야 할 절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행 등을 제도로 규정한다. 이런 공식적인 제도들을 대학교육 틀 속에서 커리큘럼, 학교 운영에 관련된 제도, 연구 및 교육에 공식적으로 필요한 제반 시설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공식적인 제도의 경우 그 포함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진다. 비형식적인 제도로 분류되는 것은 사상, 이념, 관습, 규범, 그리고 이 규범에 내재해 있는 기호, 정책 기구 및 절차 등이며,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기초가 되는 건학 이념, 신념, 관습, 습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 2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에 따른 학교 운영의 변화는 주로 공식적 제도의 틀의 변화와 연관되었다. 그 이유는 국제화, 자유화, 서구화 및 보편화란 특질들로 대변되

는 세계화의 현상은 대학의 운영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공식적 제도의 틀 속에서 채택된 세계화의 과정은 대학의 설립이념(기독교적 혹은 비기독교적)과 무관하게 발전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경쟁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세계화의 대세에 뒤쳐지지 않으려는 많은 기독교 대학의 학제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교수들의 연구에 있어 편향적인 연구성과만을 요구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교육이나 연구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기독교적 통제신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이나 연구는 자동적으로 소원해지고 이는 중국에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대학교육을 운영하고 제도화함에 있어 공식적 제도 정비에만 주력하지 말고 비공식적인 제도의 정비도 강화해야 한다. 세계화의 변혁에 따라 생성 재생성 되는 공식적인 틀을 다져주는 비공식적 제도의 구축과 함께 이 공식적인 제도의 사상적 체고 또한 중요하다. 특히 비공식적인 제도 중 하나인 통제신념은 세계화의 대세 속에 (재)발견 되어야 하며 이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확립에 필수조건이다.⁶⁰⁾

IV. 기독교 대학의 통제신념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 대응방안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세속대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60) Wolterstorff (2004, 280) 도 오랫동안 기독교 대학의 교육 및 학교 운영에 있어 기독교대학에 걸맞은 '제도적 기초의 마련 (institutional base) 구축이' 시급하다고 함으로서, 제도화가 주는 함의에 대한 고찰을 중용하였다.

이는 제도화 과정에서 스며들어야 한다. 따라서 작금의 세계화 담론에 내재되어 있는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 및 세계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현, 2004). 사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 활동의 자유를 적극 추구하기 위해 자유시장, 규제 완화 등을 옹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교육시장을 포함한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심지어는 무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의 개방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 발전과 전체의 복리가 증진된다고 간주한다. 이 점에서 바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의 위기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화 개념 정의 과정에서 소개된 특징들이 기독교 대학의 교육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기독교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해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사상이 중심이 된 세계화 담론(마미화, 2006)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침체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 시장의 세계화는 교육 시장을 해외 교육 공급자에게 개방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⁶¹⁾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그 결과로 경쟁력이 있는 교육 체계만 생존하게 된다. 약육강식의 경쟁원리를 강조한 세계화의 방편은 기독교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교육체제를 지나치게 경쟁체제로 편중하게 되고(Larsen, Martin and Morris, 2002) 이로 인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61)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란 서구사회 중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 입안자들이 신봉하는 사상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비록 일각에서는 세계화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시류에 역행하는 변화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계화가 서구 중심의 신제국주의적 발상에 따른 폐해에 대한 제언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진다. 서구가 주장하는 개방, 자유 및 국제화가 보편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세계화의 특질들로 구성되는 상기의 보편성이 서구나 미국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Hutchings, 1999). 이에 따라 세계화의 순기능에 있어 그 허구성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다 (Stiglitz, 2003).

그러나 사실 기독교 사상의 근본은 다르다. 이 점에서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를 이끌 비공식적인 제도의 하나인 기독교 사상인 가미된 통제 신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이고, 자기희생을 통한 이웃 사랑에 그 핵심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정신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는 명령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하고 이 것이 결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가치 및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한 통제 신념이 학교 교육, 운영, 연구 및 학생 및 교수의 삶에 침투, 배양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학생들의 교육목표나 진로지도와 같은 실제적 문제를 접하였을 때 기독교적 통제 신념이 가미된 교육이 가능해진다. 단순히 졸업 후 세속적 가치에 중점을 둔 조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각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자신이 부여받은 달란트와 소명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 기독교적으로 가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기독교 대학에

서 교육받고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세계가 단순히 물질주의, 과학주의, 또는 인본주의로 구성되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한 완성이란 일원적인 세계관을 공고히 하게 되며 결국에는 이런 통제신념이 기독교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통합 전파 되게 된다.⁶²⁾ 이런 인식 속에서, 비로소 기독교적으로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비판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통제신념을 바탕으로 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일상사와 영적이 삶 사이의 구분이 더욱 더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 방향도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갈 수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의 통제신념이 심분 발휘될 수 있는 비제도적 틀의 재건을 통해 기독교 신앙과 학문의 궁극적 단일화 추구에 사상적 구축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삶과 사상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조망이 계발될 수 있는 통합화의 과정을 장려해야 한다. 물론 향후 기독교 신앙의 변증작업이 전 학문분야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문과 신앙의 통합작용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 대책이 재구성 실현 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변증작업을 가능케 해주는 실증작업은 현재로는 향후의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지만, 세계화에 대한 재인식을 통한 기독교적 통제신념을 공고히 하는 작업에는 나름대로 이론적 기여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하여 세속적 세계화의 특질 속에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그리

62) 물론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전체적이고, 탐구적이며, 다원론적이며 투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행해야한다 (Holmes, 1999: 57-60).

고 이런 과정은 비공식적 제도화로 대변되는 기틀의 (재)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록 세계화에 따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제고해야 할 주요 현안이 통제 신념의 부활과 이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논의되었지만,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없었다. 단지 제도주의자들은 제도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특성 때문에 공식적 제도의 발전과정 속에 기독교 통제신념과 같은 비공식적인 제도의 고려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실제 세계화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제도화 과정에 있어 어떻게 통제신념이 구축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논의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향후 기독교 대학의 통제 신념이 어떻게 제도화에서 기독교 대학의 구성원에게 전이되는가를 논의가 본 이론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제도주의자들이 논의하듯, 제도의 구성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외부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주의는 이들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들의 정체성과 이익 그리고 행동 방식이 재구성되며 이는 기독교 대학의 교육의 틀에 비공식적 제도로 자리 잡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찰은 또한 어떻게 기독교 대학에 절실한 비공식적 제도 중 하나인 통제 신념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되는지를 조명해 준다.

V. 통제신념 구축방안: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

세상이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라는 전제가 사회구성주의의 개략적 논의이다 (Checkel, 1989). 그래서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 (exogenously given) 이라고 가정하는 제도주의와는 달리,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선호도 및 행동양식이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내생적으로 발생 (endogenously derived) 한다고 보았다. 또한 행위자들의 이익과 정체성이 협력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개별 행위자들은 상호주관적 이해 (intersubjective understanding)를 바탕으로 공동의 의미를 갖는 목적을 이루고자 협력한다고 주장했다 (Wendt, 1992, 394). 따라서 구성주의자들은 상호 접촉을 통해 얻어진 정체성과 이익의 일련체가 제도이며, 이 제도 속에서 행위자의 이익이 정의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들의 이익과 행동에 여파를 주는 정체성 형성은 사회적 신념과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학습인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모든 행위자는 자신이 행동하기 위해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안정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이를 정체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모든 행위자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환경을 평가하고 행위의 선택에 있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행위자의 습관(habits)이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행위자의 정체성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상대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 발생하며 이는 일상사(routines)에 정착된다 (McSweeney, 1999).

행위자들은 자신의 대리인 (agency)로서의 의미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선택을 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자 한다. 따라서 행위자 자신의 이익과 선호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선선결과제이다. 이 선결과제에 대한 실마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같은 일상사를 통하여 자신의 대리인됨 (agentic)을 학습하게 된다 (Giddens, 1991). 구성주의를 살펴보면서 논의되었듯이, 한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이익 및 행동양식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상호작용에서 내재적으로 발생한다. 기독교 대학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세계화란 명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기독교 대학의 제도적 교육의 틀 속에서 구성원들간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또한 이것이 변모하는 공식적 제도권인 교육 전체의 틀을 구성할 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의 구성원은 세계화에 따른 기독교 대학 교육의 내부적 틀을 형성함에 있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자신과 삶을 나누는 다른 구성원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와 협의를 일상화라는 틀 속에서 추구하게 되며, 이 때 비공식적 제도인 통제신념이 확산된다. 이런 과정에서 타인과 상호주관적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기독교 대학의 교육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에 기본신뢰틀 (basic trust unit)을 생성 발전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기본신뢰의 틀은 하나의 인식의 틀과 같은 것으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부의 변화에 대한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전체 틀의 모습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Giddens, 1991, 9). 특히 기독교 대학의 내부 속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신뢰틀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생성 발

전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신뢰들이 인식사회 (epistemic community)를 구성하는데 건설적 기여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 교육에 있어서의 제도화로 표명되는 과정 속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신뢰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및 기타 직원들이 상기 절에서 언급한 기독교 신앙적 통제신념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공유된 인식을 증가시켜주는 하나의 방법론으로는 교육 내용과 그들이 나누는 삶이 기독교적으로 승화되기 위한 성도로서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교육 내용 자체도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실제 교육과 연구에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모든 분과 학문영역에서 기독교적 해석이 가능하진 않지만, 적용가능한 주제나 학제에서 기존 시각이 기독교적 신앙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치학에서 현실주의자들의 논의에 의하면 국가의 생존에 필요하다면 전쟁을 통한 살상이 정당화 되고 이것이 도덕적이란 논의에 반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라고 가르침 받은 기독교인들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학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성향교육 (tendency learning)을 실천함도 중요하다. 즉 주님의 이웃사랑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실제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섬기는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기 중 봉사 활동이나 방학을 통한 미전도 지역의 전도여행이나 봉사 경험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참가하는 각자의 구성원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학교 전체의 제도란 틀 속에서 정착되게 된다.

이런 사회화의 학습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해 주는 장이 바로 대학교고 또한 기독교 정신이 통제 신념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곳이 기독교 대학이다. 이에 따라 기독교 대학의 구성원은 세계화의 물결에 반한 정책은 제도화된 교육의 틀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기독교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육 교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 대학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 기본 신뢰틀에 포함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구성원들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 공동의 대처를 해야 한다. 이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본 신뢰틀에 녹아있는 정신인 세계화의 특질들로 구분된 다양한 분야에서 그와 관련된 의제를 다룸에 있어 가치 중심적 공동체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럴 경우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전략이 경제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변모하는 세속적 노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려는 배움의 장으로 변모될 수 있다고 본다.

VI. 결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오늘날 이 대명령을 실행함에 있어 얼핏 보면 작금의 세계화 현상과 그 모습이 유사해 보일 수 있다. 탈지역화, 자유화, 서구화 등의 형태로 확산되는 세계화의 모습은 기독교 대학이 학문 연구 및 교육을 이행함

에 있어서 하나의 보편적인 사상을 확산시킨다는 점에 있어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현상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기독교 대학이 이르고자 하는 목표점이 일치할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자칫 잘못하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색깔이 농후한 세계화의 담론이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을 기초로 한 통제신념을 희석 또는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본 논문은 세계화란 기치 하에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대학의 학교 운영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의 결여로 인해 작금의 기독교 대학의 세계화는 비기독교 대학의 그 것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 수 있을까란 주요하고 아주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기독교 대학과의 차별성을 통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교육 환경의 세계화를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제언의 단초가 바로 세계화를 제도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제도의 틀로 나타나는 작금의 세계화 현상은 기독교 사상이 포함된 통제 신념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화를 공식적 제도화와 비공식적 제도화로 구분하여 후자의 제건을 중용함으로써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런 인식적 논의를 시발점으로 하여 본고는 기독교 신앙의 통제신념화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첨언하였다. 기독교 신앙이 통제신념화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경로의존성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독교 대학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원들이 세계화 교육에 참여함에 있어 제도의 통제권에 따른 수동적 대처 보다는 자신들이 관여하는 관계 속에서 상호 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신뢰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서만 기독교적 통제신념이 부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화, 자유화, 보편화, 탈지역화의 특성의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구 중심의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중국에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재해석이 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독교 대학은 중·장기적으로는 세속적이고 편향된 교육 및 연구의 비전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세계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국에는 동종간의연대 (solidarity)를 통한 통합이 가능해 지고 이런 연대는 국제화, 개방화, 탈지역화, 자유화, 보편화로 선순환 되어 기독교 대학이 품어야 할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 김준현 (2004).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담론 201』 . 7(2), 164-190.
- 마미화 (2006). “세계화 맥락 속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와 시민 교육적 대안.” 『시민교육연구』 . 38(1), 49-70.
- 박신흥 (2006). “뉴스위크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 한국은 한 곳도 없어.” 『중앙일보』 . 8월 15일 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지역학연구회 (편저) (1995).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Altbach, G. P. (2004). "Globalization and the University: Myths and Realities in an unequal world."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10 (1), 3-25.

Altbach, G. P. and Wiswanathan S. (eds.) (1989). *From dependence to autonomy: The development of Asian universities*, Kluwer: Dordrecht.

Albrow, M. (1990). 'Introduction', in Albrow, M. and King, E. (eds.). *Globalization, Knowledge and Society*, London: Sage.

Bennet, A. L. and Oliver, K. J. (200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s and Issues*, 7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Checkel, T. J. (1989). "The Constructivist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orld Politics*. 50 (2), 324-348.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fy*, Cambridge: Polity Press.

Hayes, D. and Wynyard, R. (eds.), (2002). *The McDonaldization of higher education*, New York: Praeger.

Holmes, F. A. (1999).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Hutchings, K. (1999),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Krasner, D. S. (1988).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 (1), 66-94.

Larsen, K., Martin, P. J. and Morris, R. (2002). *Trade in*

- educational services: Trends and emerging issue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March, G. J. and Johan P. Olsen, P. J. (1984).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3), 734-749.
- McSweeney, B. (1999). *Security, Identity and Interests: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ins, K. and Webster, F., *The Virtual University?: Knowledge, Markets, and Manag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amond, B. (1998).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Houndmills: Palgrave.
- Scholt, J.A. (2001). 'The globalization of worldpolitics', in Baylis, J. and Smith, S.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id, E.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Edition.
- Stiglitz, E. J. (2003).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Webster,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Springfield, Mass: Merriam.
- Wendt, A. (1992). "Anarch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391-425.
-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Essays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Abstract

Given that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have been detected in every corner of modern lif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react to and cope with this phenomenon. With this aim in mind, this paper contends that informal institutionalization actively embracing christian norms, values and belief system, is necessary for existing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It is only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this control belief that the governance of christian universities' education can genuinely benefit the original intension of establishment. In addition, since institutionalism falls short of providing actual methods of embedding control belief in the ongoing institutionalization of college education coping with globalization, some of the social constructivist assumption is borrowed to refine the whole argument. Consequently, this argument paves way for the subsequent studies dealing with the subject of globalization and christian universities by providing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

Key words: Globalization, Christian University, Institutionalism, Social constructivism, Control belief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 1저자로 간주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집필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한글논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한다. 특별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4. 모든 논문에는 논문 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논문 초록은 논문 제목 밑에 500자 내외로, 외국어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각각의 경우, 5단어 내외의 주제어(Key words)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면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4) 요약: 타이틀은 휴면고딕, 글자크기 9, 줄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2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장평 5%, 자간 -10%
- (6)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節, 項, 目 순으로 배열한다.
節은 'I, II, III, ...' 의 순으로, 項은 '1, 2, 3, ...' 의 순으로, 目은 '(1), (2), (3), ..'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